

##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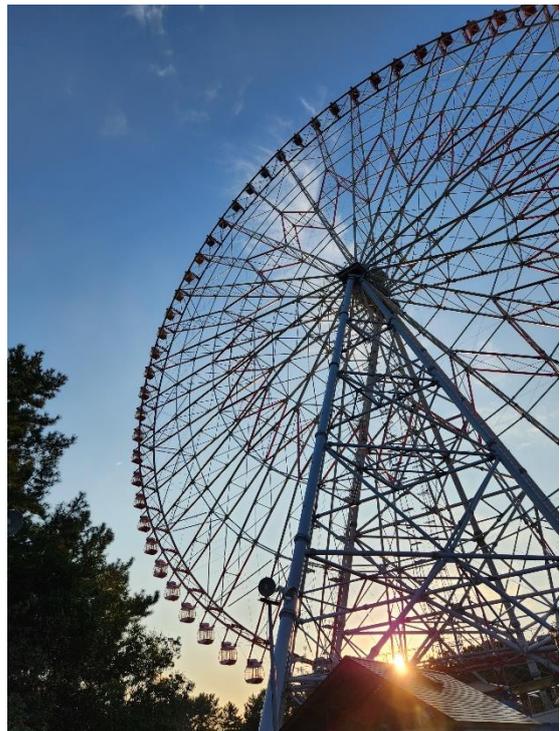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최진아

인생 첫 기숙사 생활이자 해외 생활, 두근대는 마음으로 공항을 나서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모든 게 처음이다보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처음부터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한 덕분에 나름 성공적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은 전공 수업을 듣고 싶어서, 유학생 대상 수업보다는 전공 수업을 더 많이 수강했습니다. 평소에 흥미가 있었던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견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기에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배운 내용을 따로 정리해보면서 수업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유학생 대상 수업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급한자 수업을 통해 부족했던 한자 실력을 늘리고, 일본사정연습2B 수업을 통해서 일본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차대 부속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초등학생들과 교류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어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수업은 아니지만, 일본문화체험교실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꽃꽂이, 서예, 거문고 등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본 적은 있지만, 평소에 쉽게 하기 힘든 체험을 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 일본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낼 것 같아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도쿄 근교로 외출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먼 곳으로 여행 가기. 덕분에 평소 일본에 여행을 왔을 때엔 시간이 없어 가지 못 했던 곳들이나,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주요 도시로도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박물관, 과학관, 식물원, 정원, 사찰과 같은, 조용하고 느긋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들을 특히 많이 갔습니다. 모두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풍경을 보면서 한국의 것과 비교해보려고 해도, 정작 가본 적이 없으니 떠오르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박물관이나 정원에도 더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많이 배우고, 즐기고, 적응하고,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5개월이란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기에, 더 알차게 채우고 싶어서 평소에 도전하지 못 했던 것들도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5개월 간의 기억이 제 평생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기간 중 신세를 졌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과의 오노 선생님, 입국 전후의 여러 수속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환학생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하기와라 선생님, 유학생 생활에 대한 안내 외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도교원이신 유라 선생님, 어떤 질문에도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차대에서의 경험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학교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